

退溪의 琴譜歌 研究

文理科大學 副教授 徐 元 燮

《目 次》

- | | |
|----------|-----------|
| I. 序 言 | 1. 琴譜歌 全文 |
| II. 作者攷 | 2. 內 容 |
| 1. 生 涯 | 3. 形 式 |
| 2. 爲 人 | IV. 結 言 |
| III. 作品攷 | |

I. 序 言

退溪는 李朝儒學史上 첫째가는 巨儒이다. 옛부터 聖賢의 事績을 評價하는 말에 「三不朽說」이 있는데, 이는 「太上立德 其次立功 其次立言」이라 해서 修德을 첫째로, 輔國安民을 둘째로, 學問成就와 著述을 셋째로 보는 것을 말한다.

退溪의 學問修德에 對해서 그의 門人 趙穆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先生의 學問의 正大함과 義理의 精深함과 功夫의 至到함과 操履의 堅確함과 潛心發憤하여 道를 體得하고 德을 成就함에 있어 오직 東方에 一人 뿐이다.」

其學問之正大 義理之精深 功夫之至到 操履之堅確 潛心發憤 體道成德者 以穆所見 一人而已¹⁾

라 하였고, 柳希春은 退溪의 心經後論을 읽고 大儒로서의 地位는 우리 東方에서 鄭圃隱 以後에는 오직 退溪 한 사람 뿐이라고 하였다.

柳希春 讀李芑心經後論曰 其說甚精 誠非普通大儒 焉能到此地位 信乎吾東方鄭圃隱後一而已²⁾

이와 같이 學問修養을 했고 輔國安民해서 官이 一品에 이른 退溪는 마땅히 三不朽說에 該當하는 人物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退溪의 學問에 對한 研究는 많은 後學에 依해서 綿綿히 研究되어 왔으나 近者에 와서는 退溪學에 對한 研究機關의 發足과 아울러 研究熱 또한 活潑히 展開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大部分의 研究가 「哲學者型의 道學者」로서의 退溪와 그러한 學問의 研究에

1) 退陶先生 言行通錄 卷之一 八張(增補退溪全書 四 p.12)

2) 宣祖實錄 卷之五 四年 辛未 六月 戊申.

만 重要하고 있는 것이 昨今年의 退溪學 研究의 實情이다.

退溪는 詩人 文學者型的 道學者라고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많은 詩와 우리말로 된 連時調와 歌辭가 이를 말해 주고 있다. 하기에 哲學的인 學問의 研究에만 重要한 것이 아니라 詩歌의 研究도 並行되어야만 하리라 본다.

筆者는 이 點을 強調하고 싶어 詩人 文學者로서의 退溪를 말한 바 있고, 또 우리 詩歌 作品인 陶山十二曲도 研究한 바 있다.

이제 歌辭作品 中에서 먼저 琴譜歌에 對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그런데 退溪의 琴譜歌가 國文學界에 紹介된 것은 1964年 語文論叢 2號에 鄭鎭東 教授의 解説과 1965年 李相寶 教授의 李朝歌辭精選에 註解로 紹介 發表한데서 비롯한다.

이는 製作年代를 알 수 없는 歌詞로 慶北 漆谷郡 若木面 申弘燮氏家에 所藏되어 있는 「續箕雅」에 실려 있는 寫本으로, 이 외에도 合江亭歌, 熊岩의 漁父歌九章 漁父短歌五章, 趙進士의 大明復讐歌 踏山歌 朱子賦, 退溪의 陶山六曲 樂貧歌 勸善指路歌 等도 아울러 실려 있다.

II. 作 者 攷

1. 生 涯

退溪의 生涯는 拙稿 「退溪의 陶山十二曲 研究」에서 退溪의 年譜에 依해서 이미 詳述한 바 있기에 여기서는 다만 前稿에서 疎略하게 다룬 修學期만을 補充해 보기로 한다.

退溪는 燕山君 7年 辛酉(1501 A. D.) 11月 25日 辰時에 慶尚道 禮安縣 溫溪里에서 進士 李植의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2歲 때 父親의 逝去로 母夫人에 依해서 養育되었는데 그는 6.7歲 때부터 溫恭하여 尊長에게는 敢히 怠慢한 氣色이 없었고 비록 밤중에 깊이 잠든 때라도 어른이 부르면 곧 깨어 일어나 應對했다고 한다.

先生 溫恭遜悌 對尊長不敢有惰容 雖中夜熟寐 長者有呼 即覺應唯甚謹 自六七歲已然³⁾

8歲 때(中宗 3年 戊辰)에 그의 仲兄이 칸에 손이 베인 것을 보고 兄을 격안고 우는지라 母夫人이 「너의 兄은 손을 베고도 울지 않는데 너는 어찌 우느냐」고 했더니 「兄은 비록 울지 않으나 지간이 피가 흐르는데 어찌 아프지 않겠읍니까」고 대답했다고 하는데 이에서 우리는 退溪의 兄弟에 對한 友愛가 自別함을 볼 수 있다.

그는 15歲 때 天真烂漫한 童心의 世界를 노래한 「石蟹」란 詩를 지어 左右를 놀라게 한

3) 退陶先生言行通錄 卷之六 年譜上 二版(增補退溪全集 四 p.113)

마 있고,

負石穿沙自有家 前行卻走足偏多
生涯一掬山泉裏 不問江湖水幾何⁴⁾

18歲 때는 燕谷이란 곳에 봄 놀이 가서 野塘에 물이 맑게 피어 있는 것을 보고 詩一絶을 지었고,

蘼草天天繞水涯 小塘清活淨無沙
雲飛鳥過元相管 只怕時時燕蹴波⁵⁾

19歲 때는 또 自己의 心懷를 읊은 詠懷詩를 지은 바 있다.

獨愛林廬萬卷書 一般心事十年餘
邇來似與源頭會 都把吾心看太虛⁶⁾

이에서 우리는 退溪가 벌써 哲學的 思索과 萬卷書冊에 파묻히 學問研鑽에 沒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歲 때에 周易을 읽고 그 뜻을 講究하기에 거의 寢食을 잊을 程度여서 恒常 몸이 파리하였다 한다.

그 理由를 後에 門人 趙穆에게 보낸 편지에서 「早년에 뜻은 있으면서도 그 方法을 몰라 무리하게 工夫한 탓으로 파리한 病을 얻었다」고 하고 있다.

21歲되던 中宗 16年 辛巳(1521 A. D.)에 進士 許瓚의 女와 結婚하였고, 23歲되던 해 처음으로 成均館에 遊學하였다. 때에 己卯士禍를 겪은지 얼마 안되는 때라 儒生들은 浮薄한 弊習에 젖어 있어 退溪의 行動學止가 法度에 맞음을 오히려 비웃는 것이었다.

그러나 退溪는 그들과 交遊하지 않고 오직 河西 金麟厚 한 사람만 相從할 뿐이었다. 退溪의 還鄉에 臨해서 河西의 離別詩가 있으니 그 때의 退溪의 學問成就를 살필 수 있는 좋은 資料가 되고 있다.

右云夫子嶺之秀 李杜文章王趙筆⁷⁾

27歲되던 中宗 22年 11월에 夫人 許氏가 돌아가매 30歲 때에 奉事 權礪의 女와 再婚하였다. 32歲 때 文科別試의 第2가 되어 還鄉하는 途中에 路邊 村舍에서 하루밤을 묵었는데 그 때 盜賊이 들어 同行들은 警惶失措하였으나 退溪만은 凝然히 不動했다고 한다.

4) 退溪先生續集 卷之一 一張(增補退溪全書 三 p.15)

5) 退陶先生言行通錄 卷之六 年譜上 三張(增補退溪全書 四 p.114)

6) 退陶先生言行通錄 卷之六 年譜上 三張(增補退溪全書 四 p.114)

7) 退陶先生言行通錄 卷之六 年譜上 四張(增補退溪全書 四 p.114)

34歲 때인 中宗 29年 甲午(1534 A. D.) 3월에 式年文科의 乙科에 及第하여 4월에 承文院 副正字에 除授되어 이로부터 벼슬길에 나아갔다.

그러나 退溪는 官職에 있으면서도 뜻은 恒常 故鄉 濶溪里에서의 聖賢書의 耽讀과 學問研鑽에만 있었기 때문에 여러 차례 乞暇還鄉 하였으나 그 때마다 이냥 召命을 당하곤 하였다.

그는 몇 차례의 召命에 應하여 官이 吏曹判書 判中樞府事 右贊成이 되어 宣祖 3年 庚午(1570 A. D.) 12月 辛丑 酉時에 70歲로 卒하였다.

2. 爲 人

退溪의 爲人과 性品에 對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言及하고 있는 中 客觀的인 立場에서 史官들이 記述한 明宗實錄과 恒常 退溪의 劄에서 그를 侍奉하며 教誨를 받은 門人들이 撰한 言行錄을 中心으로 해서 살펴 보기로 한다.

明宗實錄에는 退溪의 爲人됨을 氣質은 英明하고 또 淸簡하고 淸修苦節하고 古人書를 多讀하며 學問에 精進하는 者로서 그 天性은 疏淡溫精하고 寡慾하다고 말하고 있다.

以李況 爲人氣質英明 學問高詣 以小學律身 終日端坐 衣冠不解 起居言語 必以其時深探性理之源 爲一時士林領袖⁸⁾

況 天性疎淡 不求榮利 家無擔石之儲而常若 有裕 至於待人 接物平易 懇惻人 莫不愛慕⁹⁾

爲人淸簡 官雖高 居家與布衣迥異 門庭冷落 性理之學 文墨之藝 俱極其妙 無出其右者 士林皆重之¹⁰⁾ 僉知中樞府事李況 不赴召 況爲人 淸修苦節 不求榮利¹¹⁾

李況之爲人 多讀古人書而力學者也 身有疾病 性癖山林 關於世務 不能治生 故雖使上來 而留仕 爲難¹²⁾

領經筵事 尹澁曰 臣聞李況之爲人 有學識操行 而才華兼備 如此之人 不可易得 年齡不至衰老 而以 病難於立朝 退居鄉家¹³⁾

領經筵事 尙澁曰 李況年少人也 臣不能知矣 持身淸苦 如此之人 可以激薄俗 而接待天使則亦可以 華國也 同知經筵事 趙士秀曰 況不喜紛華 雖好恬淡 其性無貪功名之心 故退去矣 如此之人 不可棄 也 尙澁曰 自上以該召之 則必來矣 答曰 李況文翰非偶然 而行不淸簡 今以病在草野¹⁴⁾

先是鄭士滄啓 李況才行兼備 取重於人久矣 此人素性恬退 氣質微弱 故厭煩務 而樂閑靜耳¹⁵⁾

8) 明宗實錄 卷十四 八年 癸丑 五月 乙亥

9) 明宗實錄 卷十四 八年 癸丑 六月 辛卯

10) 明宗實錄 卷十七 九年 甲寅 十二月 己卯

11) 明宗實錄 卷十八 十年 乙卯 五月 庚子

12) 明宗實錄 卷十九 十年 乙卯 十一月 戊戌

13) 明宗實錄 卷二十一 十一年 丙辰 三月 庚辰

14) 明宗實錄 卷二十一 十一年 丙辰 五月 壬申

15) 明宗實錄 卷二十四 十二年 戊午 六月 乙酉

況 禮安人也 自少恬靜 不喜紛華 唯以理學¹⁶⁾

傳于政院曰 工曹參判李況 天性溫粹 學問精深 雅意林壑 不喜榮進 嘗解職還鄉 結廬山水之間 研究性理 卷不釋手 累被徵召¹⁷⁾

以同知中樞府事李況 性疎淡寡慾 深於理學 托病歸鄉 常以經籍自娛 雖有不平之事¹⁸⁾

史臣曰 李況氣質純粹 學問精明 尋究聖賢之書 通達天人之際 其所以養之者深 故其試於世也 清白自守 不爲非義 人皆想望其風采 勇退急流 逍遙林壑 不以家事累其心 落心力學 如恐不及 眞知之積 力行之久 年益高而德益邵 可謂一代之賢士矣¹⁹⁾

況性明潛溫謙 端詳和粹 潛心道學 體驗研究 多所自得 充養功深²⁰⁾

史臣曰 況學問精深 踐履篤實 文章節行 表準一世 安於恬靜 不喜榮進²¹⁾

況天資純粹 學識超詣 自少有志於先賢 爲己之學 心息力踐 潛意篤行²²⁾

한편 退溪의 門人인 月川 趙穆이 撰한 言行總錄에는 「先生은 天資가 穎悟하고 神彩가 精明하였다. 性은 幼時에는 端器하며 親狎하여 戲弄을 즐기지 아니하였고, 長成해서는 學問을 精研하며 道義로써 修養한 敬謹·聰明 正直하고 孝悌忠信하며 精純溫粹하며 오가는 言行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氣質은 溫和하면서도 굳세고 言辭는 婉曲하면서도 곧았다.

學識은 該博하면서도 簡要하였고, 行動은 穩全하면서도 篤實하여 淸하되 激하지 않았고 介하되 矯正하려 아니하였다.

옛것을 欽慕하되 그에 壅滯되지 아니하였고, 世上에 處하되 世俗에 흐르지 아니하였다.」

先生 天資穎悟 神彩精明 性幼端器 不喜狎弄 長好學問 養以道義 故聰明正直 孝悌忠信 而精純溫粹 不露圭角 氣和而毅 辭婉而直 學博而要 行全而篤 淸而不激 介而不矯 慕古而不滯 處世而不流 先生之於爲人 可謂幾乎²³⁾

위의 資料에서 말하고 있는 退溪의 爲人됨은 退溪가 이미 學者로서 大成한 後의 것이어서 大體로 修道 存養을 해서 性品이 溫和 端器하게된 것이라 믿어진다. 그런데 幼時 때의 爲人됨은 어찌했는지 잠깐 살펴보기로 한다.

退溪는 6.7歲 때부터 溫恭하여 尊長에게는 敢히 怠慢한 氣色이 없었고 비록 발중

16) 明宗實錄 卷二十五 十四年 己未 四月 己酉

17) 明宗實錄 卷二十五 十四年 己未 六月 辛丑

18) 明宗實錄 卷三十一 二十年 乙丑 四月 乙酉

19) 明宗實錄 卷三十一 二十年 乙丑 十二月 己酉

20) 明宗實錄 卷三十二 二十一年 丙寅 二月 丁丑

21) 明宗實錄 卷三十二 二十一年 丙寅 三月 丁未

22) 明宗實錄 卷三十三 二十一年 丙寅 六月 甲戌

23) 退陶先生言行通錄 卷之一 一紙(增補退溪全書 四 p.9)

에 깊이 감든 때라도 어른이 부르면 곧 깨어나서 應對했다고 하며,
先生 溫恭遜梯 對尊長不敢有情容 雖中夜熟寐 長者有呼 即覺應唯甚謹 自六七歲已然²⁴⁾

또 그는 흠이 어머니를 만드는데 삼가 그 얼굴 빛을 살피어 뜻에 順從하되 어김이 없었다.

母夫人도 아들의 뜻이 高潔해서 世俗事에 맞지 않을 것이 念慮되어 일찌기 말씀하시기를 「네가 仕官하되 州縣의 長은 마땅한지 모르나 高官은 마땅치 못하니 이는 世人이 너를 容納치 않을까 두렵기 때문이다.」

少孤 奉母夫人 甚謹承顏順 志動無違拂 母夫人察其志慮高潔不合於世 嘗曰 汝仕官宜做州縣 不宜作高官 恐世不汝容也²⁵⁾

고 하였다 하니 退溪는 타고 날 때부터 世俗人에 맞지않을 程度로 그 天性이 高潔하고 어질은 듯하다.

또 그는 事物을 正確하게 判斷하는 聰明함이 있었고 그에 따라 먼 앞일을 미리 알 수 있는 先見之明도 있었다.

그의 45歲 때인 明宗 即位年 乙巳(1545 A.D.) 七月에 仁宗이 昇遐하고 明宗이 即位하자 倭로부터 乞和가 있었는데 朝臣 間에 斥和의 소리가 紛紛하자 退溪는 國家가 이미 北虜와 틈이 생겨 있는데 萬若 南北 二虜가 一時에 치오면 將次 鬻을 민고 이를 감당하리오 朝廷에서 倭人의 乞和를 拒絶함은 實로 怪嘆한 일이라 하면서 이 일은 「百年社稷之憂」와 「億萬生靈之命」이 關係되는 일이라 倭人과의 和解를 許諾하여 交隣政策을 確立할 것을 上疏하였다.

方今 天變見於上 人事闕於下 大禍重疊 國運維否 此東方何等時也 且國家已與北虜構讐 設使南北 二虜 一時俱發 則將何所持而能濟此乎 聞朝廷絕倭之請 心竊怪嘆 以爲此事關百年社稷之憂 係億萬生靈之命 願以臣此章稟于慈殿 而博謀在廷之臣 折衷而審處之²⁶⁾

또 69歲 되던 宣祖 2年 己巳(1563 A.D.) 3월에 致仕하는 退溪에게 좋은 말을 해 줄 것을 請했더니 이에 今世는 太平한듯 하나 南北으로 틈이 있어 生民이 困弊한데 府庫가 비어있으니 나라에 猝然히 事變이 일어나면 禍과 같이 무너지리니 이를 미리 막기를 아뢰었다.

今世 雖似治平 然南北有讐 生民困弊 府庫空虛 將至於國非 非國猝有事變則不無土崩瓦解之勢 不可謂無可憂之防也²⁷⁾

21) 退陶先生 言行通錄 卷之六 年譜上 二張(增補退溪全書 四 p. 113)

25) 退陶先生 言行通錄 卷之二 居家 十四張(增補退溪全書 四 p. 189)

26) 退陶先生 言行通錄 卷之六 年譜上 十四張(增補退溪全書 四 p. 119)

27) 退陶先生 言行通錄 卷之七 年譜下 五十張(增補退溪全書 四 p. 147)

退溪의 琴譜에 研究

앞의 記錄은 그의 45歲 때인 明宗 即位年(1545 A.D.)의 것이고, 뒤의 것은 69歲 때인 宣祖 2年(1569 A.D.)의 것이다.

이로써 보면 退溪는 벌써 壬辰倭亂이 일어나기 48年 前에 國家에 大亂이 일어남을 豫測하고 있었다.

아무튼 退溪는 날 때부터 世俗에 맞지않을 程度로 天性이 高潔하고 어질며 父母에게 孝誠스러웠고 尊長에 溫恭하며 兄弟 間 友愛가 自別하였고, 長成해서는 仕官을 즐기기로 聖賢를 耽讀하고 學問研鑽을 좋아했는데 그는 終日 端坐해서 衣冠을 不解할 程度로 學問修德에 힘썼고 먼 앞일도 미리 알 수 있는 先見之明을 갖춘 이 었다.

Ⅲ. 作 品 攷

1. 琴譜歌 全文²⁸⁾

第 1 段	玉樓紗窓	花柳中의	白馬金鞭	少年들아
	平生聞見	七絃琴을	알고지리	걸기는야
	知音을	못하거던	首律을	이이알며
	博物을	못하거던	體法을	이이알리
	知音과	體法을	날다리	뭇거드먼
	窮天	地理을	大綱이나	일으일라
第 2 段	太平代	聖帝王이	堯舜맛키	쓰었느냐
	乃微服	遊康衢의	擊壤歌도	조키니와
	畊厓山	漁雷澤의	讓畔이	이더턴고
	俗理	世晏하니	일너질되	임것마논
	今代	億兆民이	戮而王	하즈하니
	民心을	揣度하야	一張琴	땡그실제
	蒼梧山	碧溪邊의	걸노죽은	石上梧桐
	玉斧로	베허되야 ²⁹⁾	三尺에	裁斷하니
	上中下體	한法이	天地人	三才로다
第 3 段	中虛	外實하야	陰陽을	配合하니
	三陽은	우의잇고	二陰은	아력엇다
	背部의 ³⁰⁾	둥글기논	이아니	天圓이미

28) 本歌는 李相實 教授 著 李朝歌辭精選에 收錄된 것이고, 鄭鉉東 教授本 中 本歌와 相異한 것은 註欄에 밝히둔다.

29) 玉斧로 베허되야

30) 首부의 둥글기논

腹部의	모논기논	이아니	地方인가
上天의	낙문거선	天不足	西北이오
下地에	나문거선	地不滿	東南이라
天地을	既法호고	人事로	숨인저게
大舜은	別標되여	上位을	德額호고
八元	八愷논	一行으로	압히서서
우의시	나논승을	次例로	맞들저게
扶桑	萬年枝에	측갓치	얼킨唐絲
一川	南北의	배갓치	질겨날오
三手의	交合호야	五絃을	드려낙나
背絲로	똥홀이여	늘리어	반인樣은
丹山	碧梧枝에	鳳의소리	지시로다
三絃은 ³¹⁾	三德되야	十六標로	맞쳐잇고
二絃은 ³²⁾	二相되여	무이시로	고와던고
九萬里	雲霄의	기리의	반이로다
第 4 段 蕭湘	斑竹枝로	측측이	골나낙나
大絃은	濃濃호여	老龍의	우름이오
小絃은	冷冷호여	別鶴의	소리로다
宮商	角徵羽는	五音이	버려잇고
水火	金木土는	四時을	맛다잇다
第一은	象角호니	木音이	측聲이라
東風	百花節의	杜鵑의	소리로다
第二는	象徵호니	火音이	夏聲이라
南山	松栢枝에	孔雀의	소리로다
第三은	象商호니	金音이	秋聲이라
西風	白帝城의	위기력의	소리로다
第四는	象羽호니	水音이	冬聲이라
北水	長江의	여출우난	소리로다
第五는	象宮호니	土音이	雄聲이라
春秋	戰國時에	地動호난	소리로다
源源호 ³³⁾	正音이야	이러트	호기니와

31) 三絃은 三德되야

32) 二絃은 二相되여

33) 源源호 正音이야

高雅子	高麗營子 ³¹⁾	高化子	가화 ³¹⁾
下階	김는니로	標아니	남아니 ³⁵⁾
青山의	疏水韻 ³⁷⁾	風月의	간풍의 ³⁸⁾
步虛子	步方曲을	太平의	평안의 ³⁹⁾
第 5 段	南薰殿	月明夜의	승교의⁴⁰⁾
玉音을	능하되야	解吾民	조국민 ⁴¹⁾
景星이	뉘타나코	卿雲이	얼어날제 ³⁸⁾
百工의	相和호야	和答호코	아니노타
그아니	舜琴아미	아아니	舜악아니
周文武	二加絃도	千古에	是非엇코
曹處士	漢臥龍도	이쫓을	나카날다
未來에	女樂하야	蕭韶을	얼적아기
古拂	酒肆에	김맛는	物件아니 ³⁹⁾
離別曲	長短調코	가닐남을	挽留호니 ⁴⁰⁾
가가나	오가나	一人下	금同아니니
엇저나	大聖遺譜을	謨傳할호	엇호는가 ⁴¹⁾

2. 內 容

거문고는 元來 中國樂器로 淮南子의 「舜彈五絃之琴 而歌南風之詩 以治天下」라는 記錄과 珍本 古丘永言에

南薰殿 불꽃는팔의 八九八凱 등디서코

五絃琴 一琴에 解吾民之 惱分로다

우리도 聖王의 詩의 同樂太平 등디리

라는 時調로 모이 舜帝 때 七絃琴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또 宋學軌의 卷之七 唐部樂器圖說 琴條에 보면 그 모양과 制度 彈法이 記錄되어 있다.

거문고의 長은 三尺 六寸 六分인데 이는 三百六十六日을 象徵하고, 幅이 六寸은

31) 高雅 高麗營의

35) “造化를 가리조가”였음

36) 標아니 남아니니.

37) “青山 疏水韻”으로 되어 있음

38) “景星이 뉘타나코 卿雲이 얼어날제”였음

39) “古拂 酒肆에 김맛는 物件아니”였음

40) “離別曲 長短調코 가닐남을 挽留호니”로 되었음

41) “가가나 오가나 一人下 金同아니니. 엇저나 大聖遺譜을 謨傳할호 엇호는가”

式身에 “가가나 오가나 大聖遺譜을 謨傳할호 아아니니”로 되어 있음

六合은 象徴하고 五絃은 五行을 象徴하고 腰廣이 四寸임은 四時를 象徴하고 前廣後狹은 尊卑를 象徴하고 上圓 下方은 天地를 象徴하고 五絃 中 三絃은 16棵 上에 있고 二絃은 그냥 雁尾으로 버티어 놓았는데 이는 前而是 桐木을 쓰고 後面은 栗木을 使用해서 만들고 그 彈法은 거문고를 틀 무릎 위에 올려 놓고 右手로 海竹의 술대(匙)를 잡고 絃枕 가까이 술대 끝으로 줄을 내리치고 或은 거슬러 치는데 그 때 左手로는 五絃은 고른다.

樂書云 長三尺六寸六分 象期之日也 廣六寸 象六合也 絃有五象五行也 腰廣四寸 象四時也 前廣後狹 象尊卑也 上圓下方 象天地也 擘十有三 象十二律 餘一以象間也 其形鳳而朱鳥南方之禽 樂之主也 五分其身 以三爲上 以二爲下 參天兩地之象也 文王武王各加一絃 以爲文絃武絃 是謂七絃

按造琴之制 前面用桐木 後面用栗木 糸以黑擘以螺蛤爲之 凡十三中擘最大 至第一擘 第十三擘漸次而小 凡七絃 初絃稍大 至七絃 漸次而細

以左手按絃姑洗用名指立按餘皆母指斜按並肉甲兼用之 以右手彈絃姑洗用名指勾彈夾則南呂無射應鍾……42)

그렇다면 中國樂器인 琴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언제부터 인가?

三國史記 樂志에

新羅古記云 初昔人以七絃琴送高句麗 麗人雖知其爲樂器 而不知其聲音及鼓之法 購國人能識其音而鼓之者 厚賞 時第二相王山岳存其本樣 頗改易其法制而造之 兼製一百餘曲以奏之 於時玄鶴來舞 遂名玄鶴琴 後但云玄琴43)

라는 記錄이 있다. 이에 依하면 처음 晉에서 高句麗에 七絃琴을 보내왔는데 그 聲音과 彈法을 안지 못해서 第二相인 王山岳이 그 本樣을 두고 여러번 法制를 고쳐 樂器를 만들어 타니 玄鶴이 날아와 춤추었기로 玄鶴琴이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는 以後 伽倻琴과 琵琶와 더불어 三絃이라 인컬어져 우리나라 固有의 絃樂器가 되어 왔다.

退溪의 歌樂觀은 男女相悅之詞인 變聲을 싫어하고 道德을 기르는 舜琴과 같은 正聲만을 기리고 있다.

그의 이러한 音樂觀은 그가 쓴 韓岩의 漁父歌跋과 陶山十二曲跋에 잘 나타나 있다. 韓岩의 漁父歌跋에 보면 正聲인 漁父詞의 참뜻을 아는 이가 적음과 密陽 朴浚이 撰한 歌樂에 霜花店 등이 混載해 있어 사람들이 男女相悅之詞인 이들 霜花店 등을 즐기는 것을 慨嘆하였고,

世所傳漁父詞……厥後存沒推遷 舊聲杳不可追 而身墜紅塵 益遠於江湖之樂則 思欲更聞此詞 以寓興而忘憂也 在京師遊蓮亭 常編問而歷訪之 雖老伶韻伯 莫有能解此詞者 以是知其好之者鮮矣 頃繼有密陽朴浚者 名知衆音 凡係東方之樂 或雅或俗 靡不哀集 第一部書 刊行于世 此詞 與霜花店諸曲

42) 樂學軌範(延大人文科學研究所) 樂二 63 a. 63b.

43) 金鍾樞 譯 三國史記 pp. 512~3. 先進文化社 1963. 10. 30.

混載其中然 人之聽之於彼則于舞足蹈 於此則倦而思斷者 何哉 非其人 固不知其音 又焉知其聲乎⁴⁴⁾

또, 陶山十二曲跋에서는

우리 東方 歌曲은 多滯吐하여 口に 담은 것이 못되고, 翰林別曲類는 文人之 口에 서 나왔으나 矜豪放蕩한데다가 褻慢戲狎을 兼하니 더욱 君子의 所宜에 맞지 않는다 고 하고 世俗의 樂을 좋아하지 않아 다만 性情에 느끼는 미가 있으면 詩로 노래 畧했다.

右陶山十二曲者 陶山老人之所作也 老人之作此 何爲也哉 吾東方歌曲 大抵 多滯吐不足言 如翰林別曲之類 出於文人之口 而矜豪放蕩 兼以褻慢戲狎 尤非君子所宜 尙推近世 右李繼六歌者 世所盛傳 猶爲彼音於此 亦借乎其有玩世不恭之意 而少溫柔敦厚之實也 老人素不解音律 而猶知厭聞世俗之樂 閑居養疾之餘 凡有感於情性者 行發於詩⁴⁵⁾

이와 같이 男女相悅之詞인 變聲을 싫어하고 道性을 기르는 舜琴과 같은 正聲만을 기리는 그의 歌樂觀은 琴譜歌에도 잘 나타나 있다.

本 歌辭는 聖代의 音樂이던 正聲인 舜琴을 讚揚하고 그 거문고의 制度와 聲律을 道德的인 見地에서 附會 說明하고 차츰 世上이 亂世가 됨에 따라 正聲이 몰려가고 男女相悅의 變聲이 盛行하는 것을 慨嘆한 것이다. 이제 本歌를 그 文脈에 따라 5段으로 分段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第一 段

〈玉樓紗窗 花柳中の 白馬金鞭 少年들아 〈中略〉 窮天 地理을 大綱이나 일으킬리〉

輕滑한 少年들이 白馬金鞭으로 花柳場으로 돌아다니며 妓女를 밧하고 거문고의 音律과 體法도 알지 못하면서 오직 變聲만을 좋아하여 蕩逸하는 것을 慨歎하면서 正聲의 音律과 體法을 말 해 주겠다고 하고 있다.

第二 段

〈太平代 聖帝王이 堯舜맛기 또잇느냐 〈中略〉 上中下體 算法이 天地人 三才로다〉

歷代를 通觀할 때 太平聖代의 帝王으로는 治天下 五十年에 善治興否를 알지 못해서 微服으로 康衢에 나가서 「日出而作 日入而息 鑿井而飲 耕田而食 帝力何有於我哉」란 擊壤歌를 듣고 비로소 太平世임을 알았다고 한 堯帝와 歷山에 밭을 가니 百姓이 다 讓畔하고 出澤에 고기 잡으니 사람이 다 讓居했다고 한 舜帝 뿐이라 하고, 또 舜은 梧桐山 碧溪邊의 石上 梧桐을 베어 五絃琴을 만드니 그 舜琴은 上中下體 한 法이 天地人 三才를 본

44) 古丘水言 p. p. 7~8. 朝鮮珍書刊行會 1948. 5. 30.

45) 退溪先生文集 卷之四十三 二十三張(增補退溪全書 五 p. p. 10~11.)

받았다고 하고 있다.

第三段

〈中虛 外實하여 陰陽을 配合하니 〈中略〉 九萬里 雲霓의 기력의 받이로다〉

여기서는 거문고의 갖춤새를 말하고 있다.

거문고는 中虛 外實하여 背部는 마치 天圓과 같이 둥글고 腹部는 마치 地方과 같이 모났는데 靑絲로 된 五絃 中 三絃은 16棵 위에 있고 나머지 二絃은 그냥 雁足으로 버티어 놓았다고 말하고 있다.

第四段

〈蕭湘 斑竹枝로 줄줄이 끝나더니 〈中略〉 步虛子 尋訪曲은 太平의 詩興이라〉

여기서는 거문고의 聲律을 말하고 있다. 거문고를 타면 絃마다 各各 獨特한 소리가 나는데 大絃은 마치 老龍의 울음소리와 같고 小絃은 仙鶴의 소리와 같다. 또 五音을 具體的으로 말하기를 第一聲은 東風 百花節의 杜鵑聲과 같고, 第二聲은 南山 松栢枝의 孔雀聲과 같고, 第三聲은 西風 白帝城의 孤雁聲과 같고, 第四聲은 北水 長江의 灘聲과 같고, 第五聲은 春秋 戰國時의 地動聲과 같다고 하고서 大平聖世의 音樂(正聲 곧 治世의 音樂)을 玉指로 彈奏한 때마다 柳마다 各各 다른 清雅한 소리가 나고 特히 步虛子(長春不老之曲) 尋訪曲(心方曲 神房曲 시나위 鄉樂)을 彈奏하면 太平의 詩興이 일어난다고 하고 있다.

第五段

〈南薰殿 月明夜에 손조빛겨 안으시고 〈中略〉 엇지타 大聖遺譜을 謬傳할 잇슬는가〉

舜帝가 南薰殿 明月夜에 舜琴을 타면서 「南風之薰兮 可以解吾民之愠兮 南風之時兮 可以阜吾民之財兮」라고 노래를 불렀더니 때에 王者의 禮樂制作이 天意를 얻으면 나타난다는 景星이 出하고 德至山陵하면 나타난다는 卿雲이 일어나 이에 百官들이 舜帝의 南風詩에 和答하기를 「卿雲摛兮 禮漫漫兮 日月光華 且復且兮」라 했다고 하니 이와같이 舜琴은 治世의 音樂(正聲)이었는데 今世에 와서는 어느듯 女妓의 音樂으로 變하여 靑樓酒肆에서 오직 輕薄子들의 男女相悅의 變聲으로만 盛行함을 보고 元來는 治世의 音인 大聖의 遺譜를 謬傳하는 것을 慨嘆하고 있다.

3. 形 式

本 歌辭는 65節 130句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 音數律을 보기로 한다.

退溪의 琴譜歌 研究

<表 1>

音數律 작품	2·3調	2·4調	3·3調	3·4調	3·5調	4·3調	4·4調
琴譜歌	5	13	3	86	2	1	20

이에 依하면 本歌에서 使用되고 있는 音數律은 2·3調 2·4調 3·3調 3·4調 3·5調 4·3調 4·4調 等 7個인데, 이를 다시 整理해 보면 다음과 같다.

- 5字句 2·3調 — 5個
- 6字句 { 2·4調 — 13個
 3·3調 — 3個
- 7字句 { 3·4調 — 86個
 4·3調 — 1個
- 8字句 { 3·5調 — 2個
 4·4調 — 20個

이를 보면 130句 中에서 3·4調가 86個가 되고, 4·4調가 20個가 되어 이는 兩班歌辭의 主音數律이 3·4調이고 副音數律이 4·4調라는 것에도 符合하고 있어 形式面에서 좋은 歌辭임을 보여 주고 있다.

이 歌辭가 形式面에서 어느 程度 優秀한 것인가는 歌辭文學의 絶調라고 하는 松江의 思美人曲과 對比해 봄으로써 自然 밝혀지리라 본다.

<表 2>

作品名	節數	音數律 句數	2·2調	2·3調	2·4調	3·3調	3·4調	3·5調	3·7調	4·3調	4·4調	5·3調
			琴譜歌	65	130		5	13	3	86	2	
思美人曲	63	126	1	3	10	9	77		1	1	23	1

이 對比에 依하면 音數律 數에 있어 思美人曲은 9個인데 比해서 琴譜歌는 7個가 되어 思美人曲보다 音數律이 2個 더 적은 셈이다.

音數律이 많다고 하는 것은 어떤 面에서는 形式에 있어 좀 더 自由스러운 表現樣式이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詩歌라는 觀點에서 볼 때 적은 音數律로 形式을 構成하고 있다는 것은 形式美에 있어 짜임새 있는 優秀한 作品이라 할 수 있다.

우리 歌辭의 音數律이 主로 3·4調 乃至 4·4調로 이루어졌고 그것도 嚴히 따져보면 兩班歌辭에서는 3·4調가 主音數律이고 4·4調가 副音數律인데 反해서 內房歌辭에서는 4·4調가 主音數律이고 3·4調가 副音數律로 되어있다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⁴⁶⁾

46) 徐元燮: 歌辭의 內容과 形式攷 慶北大論文集 11號 1968. 12. 25.

兩班歌辭의 하나인 本歌도 그 音數律이 주로 3·4調와 4·4調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主音數律인 3·4調가 斷然 優勢하게 使用되어 있고 그 다음이 4·4調가 使用되고 있어 形式面에서 볼 때 本歌는 歌辭의 絶調라고 하는 思美人曲보다 뛰어난 作品이라 할 수 있다.

IV. 結 言

以上에서 論述한 바를 다시 要略해 봄으로써 結論을 삼고자 한다.

1. 前稿「退溪의 陶山十二曲 研究」에서 그 生涯를 ① 修學期 ② 出仕期 ③ 講學期的 3期로 나누어 살펴 보았는데 本稿에서는 前稿에서 疎略하게 다룬 修學期만을 補充하는데 그쳤다.

그 結果 退溪는 幼時부터 父母에게 孝性있고 尊長에게 溫恭하고 兄弟 間 友愛가 自別하였고 詩才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退溪의 爲人됨을 明宗實錄과 門人이 撰한 言行錄 中에서 살펴보았다. 그는 날 때부터 世俗에 맞지않을 程度로 天性이 高潔하고 어질었고 長成해서는 仕官을 즐기기 보다는 聖賢書를 耽讀하고 學問研鑽을 좋아했는데 그는 終日 端坐해서 衣冠을 不解한 程度로 學問修德에 힘썼고 먼 앞일까지도 미리 알 수 있는 先見之明을 갖춘 이 였다.

3. 歌辭의 全文 紹介에서는 李相寶 鄭鉉東 兩氏本을 對比해 보았다.

4. 內容에서는 琴이 中國樂器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時期 및 緣由와 그 모양 製度 彈法을 紹介하고 또 韓岩의 漁父歌跋과 陶山十二曲跋을 中心으로 해서 退溪의 歌樂觀을 살펴본 後 本歌는 舜琴과 같은 正聲을 讚揚하고 後世에 와서 亂世가 됨에따라 正聲이 물러가고 男女相悅의 變聲이 盛行하는 것을 慨嘆한 것이라는 것과 全文을 5段으로 分段하여 그 內容을 살펴 보았다.

5. 形式에 있어 本歌는 65節 130句로 그 音數律은 7個인데 3·4調가 86個가 되고 4·4調가 20個가 되고 있어 이는 또 兩班歌辭의 主音數律이 3·4調이고 副音數律이 4·4調라는 것에도 符合하는 좋은 歌辭임을 알았다. 또 歌辭文學의 絶調인 思美人曲과 그 音數律을 對比해 본 바 思美人曲은 9個의 音數律로 이루어졌는데 比해서 本歌는 7個의 音數律로 되어 있어 形式面에서 볼 때는 오히려 思美人曲보다 짜임새 있는 作品임을 알 수 있었다.